

“소비자 니즈 충족시키는 제품 선보일것”

“지역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에 잘 대처해 브랜드를 발굴하고 나아가 지역업체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브랜드 제품점 입점과, 향토 특산물 판매, 중소기업 상생 행사 기획 등으로 롯데백화점 광주점 F&B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 이준호 치프바이어가 주인공이다.

올초 전북 익산의 유명 빵집 ‘풍성제과’가 광주점 식품관에 입점하는 데에는 이 바이어의 노력이 컸다.

풍성제과는 익산의 작은 동네 빵집으로 30여년 이상 고집스레 지켜온 맛과 품질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올초 광주점에 입점한 풍성제과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최근에는 롯데 아울렛에 추가로 오픈했다.

이 바이어는 “시간이 날때마다 익산을 찾았다. 처음에는 점포 면적 등 조건이 맞

■ 롯데 광주점 이준호 치프바이어

소상공인 판로 개척 위해 ‘향토 특산물관’ 운영 ‘전통시장 상생 상품전’ 등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

지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목적의식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가 입점을 이끌어 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바이어는 지역에 맞는 음식과 맛집 유치를 위해 밤낮으로 발품을 팔고 있다. 2030대들의 식품 소비트렌드를 한눈에 볼수 있는 SNS 또한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 바이어는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맛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지방, 서울 등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한다”며 “편하게 구해서 쉽게 먹을수 음식 보다는 고객들이 가기 어려운 지역의 맛집을 발굴해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농가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우수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는 ‘향토 특산물관’ 판도 운영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상생 상품전도 개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 바이어는 단순한 맛집 유치를 넘어 광주점만의 특색 있는 브랜드를 선보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할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 바이어는 “상인, 소비자들과의 소



통을 통해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연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에 맞는 MD 실현과 나아가 지역사회와 상생할수 있는 아이템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광주여대 취업지원센터, 청년취업 아카데미 수료식

광주여자대학교 취업지원센터는 최근 정보통신관에서 2018년 청년취업 아카데미-단기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광산구 아파트입주자대표팀, ‘내가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

광주 광산구 첨단1동 아파트입주자대표팀의회(회장 정환성)는 이웃 간의 소통 부재와 층간소음 등 사회문제 발생을 해결하고, 아파트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내가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윤영봉 기자



남동발전 여수본부, 청소년 초청 문화체험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는 지난달 31일 ‘지역 미래인재와 함께하는 Funny Day 프로야구관람 행사’를 시행했다.

이날 행사는 ‘상대적으로 문화공연이나 스포츠 관람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여수본부는 여수지역 아동복지시설인 삼해원 청소년 30여명을 초청해 광주 KIA 타이어

vs 롯데 자이언츠 경기를 관람했다. 이번 문화행사에 함께한 삼해원 박흥의 복지사는 “아이들이 즐겁게 야구 관람을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며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준 여수발전본부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는 KOEN 드림키움(인재양성) 프로젝트와 더불어 지역 청소년과의 아름다운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



보성 북부농협-대구의대 의료봉사활동

보성 북부농협과 대구한의과대학교는 최근 공동으로 북내면 친환경 복지관에서 ‘2018 농촌지역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의료 봉사활동은 보성군 북내, 문덕, 검백, 울어면 등 북부지역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침, 뜸, 부항 등의 진료를 실시했다. /김근종 기자

특히 의료혜택이 부족한 농업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진료해 호응을 얻었다.

대구의대 이현종 지도교수는 “적은 정성에도 주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사회적 가치 실현의 책임을 더욱 크게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성장 지원 ‘호응’

광주 남구가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국 무술 동아리 프로그램과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월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중국 무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10여명의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무예 습득 수준을 체크해 추후에 태극권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김종찬 기자

다문화 가족 자녀라면 누구나 중국 무술 동아리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다.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월부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탐색케 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인지를 통한 진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진로·경제 교육, 직업 체험 등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김종찬 기자



코레일 광주본부, 포토존 건립 재능기부 협약

코레일 광주본부는 광주송정역에 광주 지역 상징 포토존 건립을 위한 (재)콜리나무세오와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포토존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를 제공하며, (재)콜리나무세오는 포토존 디자인 설계 및 설치를 문화나눔 재능기부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설치될 포토존은 철도

이용객들과 광주송정역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포토존이다.

사전에 전문 자문위원 10명과 고객 선호도 조사를 통해 ‘안녕, 광주!’ 라는 작품이 선정됐으며, 올 가을 광주방문의 추억과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포토존으로 태어날 예정이다. /김종찬 기자

광주문화재단, 주정민 교수 초청 특강

‘민선 7기 문화정책의 방향정책과 방향’ 주제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1일, 월례조회 시간에 광주혁신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위원장인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를 초청해 ‘민선 7기 문화정책의 방향정책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민선 7기가 닦을 올린 지 한 달여가 지나고 문화 행정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광주시 6대 문화공약과 혁신위원회 과제들에 대한 공유와 소통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지역문화 현

장과 가장 밀접한 문화재단 직원들에게는 민선 7기의 시정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주정민 교수는 광주를 문화적으로 재편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6대 공약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도시 공간의 문화적 기획, 시민이 문화소비자 겸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역사박물관, 국악당 등을 건립해 광주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체험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등이



다. 혁신위원회현안과제 중에서는 아시아 문화전당 운영 활성화와 전당과 연계한 5대 문화권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특히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시민 및 관광객들이 각종 문화행사과 공연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 플랫폼 구축에 문화재단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보람 기자



전남도교육청, 꿈사다리학교 운영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기회 불균형과 학습능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이나 섬 지역에 사는 소규모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사다리 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광양 ‘사랑(愛) 냉장고’ 기부 릴레이

광양시 광양읍은 최근 이웃사랑을 마음에 담아 행복을 전달하는 ‘사랑(愛) 냉장고’에 따뜻한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광양=정경화 기자



전남대의대 축구팀 ‘코마’ 정상 노린다

전국의과대학축구대회 호남 예선 우승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이 2018년 전국 의과대학 축구대회 호남지역 예선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년 만에 전국 정상 탈환에 나섰다.

전남대의대 축구동아리 ‘코마(지도교수 김윤호 전남대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전주 덕진체육공원서 열린 대회 메디컬리그 호남지역 예선에서 종합전적 2승1무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3년 연속 메디컬리그 본선무대에 진출한 전남대의대는 지난해 준우승의 설욕과 함께 2016년에 이은 2년 만에 전국 우승을 노리게 됐다. 이번 호남지역 예선은 전남대의

대를 비롯해 조선대·전북대·원광대의대 등 총 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리그전으로 펼쳐졌다.

리그 1차전에서 조선대 의대를 상대로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코마는 2·3차전에서 원광대 진체련공원서 열린 대회 메디컬리그 호남지역 예선에서 종합전적 2승1무로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본선은 오는 4일 부산 을숙도 잔디축구장에서 전남대, 서울대, 건양대, 인제대, 한림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한양대 등 지역예선을 통과한 8개 의대팀이 승부를 가리게 된다. /김종찬 기자